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한 친환경 공동주거의 모형개발 연구(1) -

A Study on the preference and trends about co-housing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in Rural and Fishing Village

- A study on the Model of Co-Housing for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in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I) -

조 원 석* 김 흥 기**

Cho, Won-Seok Kim, Heung-Gee

Abstract

According to the aging society, the housing environments of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are faced with social various problems. On the dwelling welfare, development of model for the silver house is necessary at the reducing of social expense. Particularly, the silver housing conditions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poor than urban reg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looked to an negative opinion about cohabitation of the aged, but the senior citizens who don't live alone and preliminary old man group showed a positive opinion to the regarding cohabitation. Second, Most of the aged was in poor health, On this account they expressed an opinion that they were opposite to the cohabitation opinion. Although considering health, simultaneous design of both private life and community life shall be reflected to the preferential design element in co-housing of the aged. Through these co-housing for the aged in rural and fishing village, the senior citizens who lives alone have prevented poor housing surroundings, loneliness, loss of role, uneasiness, gloomy, chronic disease.

키워드 :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주거, 선호, 에이징 인 플레이스

Keywords : Rural and Fishing Village,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Co-Housing, Preference, Aging in Place

1. 서론

노화(aging)는 생물학적으로 각종 기능 저하와 질환을 수반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4, 50대 보다 인적, 물질 관계망이 위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정(家庭)"이라는 범주 내에서 안식과 평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생활영위의 기초 단위로서 양질의 주거환경(住居環境) 보장은 보다 행복한 노화(better aging)를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요소로, 그 어떤 요소 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동시대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혼자 사는 노인이 나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독사(孤獨死)"의 증가가 예상되는데¹⁾ 이에 대

한 대응도 될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기준 11.0%이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거노인(홀몸노인) 비율은 2010년 총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1인 가구 중 19.2%가 70살 이상 독거노인 가구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이러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후인 2030년에는 10가구 중 1 가구(11.8%)가 독거노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²⁾ 특히 대도시 보다 지방의 시군에서 노인인구와 독거노인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³⁾

*정회원, 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110010340)

1) 민관 손잡고 독거노인 고독사 막는다, 아시아경제 2011.1.27, 폭설 독거노인 생사기로, MBC뉴스 2011.2.16

2) 201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부문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1733만9,000가구)에서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3%(420만5,000가구)로 최대이고, 1인 가구는 414만 2,000가구로 23.9%를 차지했다. 4인 가구 22.5%(389만8,000가구)보다 '나홀로 가구'인 1인 가구가 더 많았다. 특히 1인 가구 중 19.2%가 70살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2011. 7. 7

3)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2010. 9. 29, 2009년 전남, 경북, 전북, 충남, 강원도의 5개 시도는 65세 인구

표 1. 독거노인 가구 비율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_2010

| 구분 | 2000 | 2010 | 2020 | 2030 |
|------------------|------------------|--------------------|--------------------|---------------------|
| 독거노인가구 (구성비%) | 543,522 (3.7) | 1,021,008 (6.0) | 1,512,082 (8.0) | 2,338,354 (11.8) |

노인 대상 주택 보급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수요공급의 균형감이 부족하고 다양성 또한 부재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관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바, 본 연구는 농어촌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모형 개발을 위해 3년 동안 순차적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1차년도 현황 조사 및 공동거주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 경향을 파악하여 개발 방향을 수립한다. 그리고 2차년도 공동 거주의 유형과 각 유형에 적합한 단위 모형을 개발하고, 3차년도는 친환경 구법과 관련된 부문별 상세 지침을 제안하여 관계 기관의 정책 개발 및 현장 적용의 실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1 연구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생활의 적극적 해결(active solution)은 노인부양, 개호 요양서비스, 질병, 빈곤, 고독, 노인 직계 가족의 행복지수 등 형이상학적 변화와 농어촌 노후주택 정리 및 경관 정비 기회, 노인 상호간 케어 생활 기반, 국가 재정 절감 등 형이하학적 변화라는 영역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거주에 대한 선호 경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⁴⁾ 이는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공동주거 모형의 모색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 기초적 자료제공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보다 나은 노인주거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관점에서 진행한다.⁵⁾

연구대상은 노인복지법(1981년)과 노인장기요양법(2007년) 등에서 추구하는 목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활이 가능한 일반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이다.

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시군구별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경북 의성군'이 3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군위'와 '전남 고흥' 순을 보인다. 경남 밀양시 등 42개 시·군·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를 넘은 초고령 시군구도 67개 (232개 시군구 중 28.9%)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다.

4) 선호 경향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건강정도, 주택소유, 성별/연령, 거주지역, 주택노후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5) 노인이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사회 내에서 그대로 살게 하여야 한다는, 즉 aging in place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오찬욱, 노인재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디자인의 방향, 한국노년학회 및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주택과 서비스 개발방향, 2002. p.138 및 김대년, 최정신, 조명희, 권오정, 개발 이념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용 그룹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5호, 2000. pp.22-23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곡면 행정2리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면접 방안 및 문항)을 개선하여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예비조사결과 독거노인집단과 비독거노인집단간 선호 및 인지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설문조사는 4·50대의 예비노인집단과, 60세 이상의 노인집단(독거노인집단, 비독거노인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기서 비독거노인집단은 노인부부, 자녀와 동거, 혼자된 노인과 자녀, 노인과 손자/손녀, 기타 친인척 및 친구와 공동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에 의한다. 먼저 개별 노인에 대한 현 주거 상황에서 장차 마을 내에 공동주거를 마련하여 함께 모여 산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충분히 설명한다. 이 설명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와 면접조사원간 신뢰 형성을 시도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거에 대해 자유롭게 요구사항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중간에 해당되는 설문 문항에 체크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인 1조로 3팀 6명이 요양보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자료 분석은 SPSS에 의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인의 범위는 노인복지법(65세 이상인자), 국민연금법(60세부터-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노령연금 수급권자) 고령자 고용촉진법(55세 이상인자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를 준고령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기준을 채용하여 4·50대의 예비노인집단과, 60대 이상의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설문조사 대상지는 도농통합도시로서 폭설, 폭우, 산사태 등으로 노인가구 고립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릉시 7개 면과 전형적 농어촌 군 지역 지자체로 양양군의 5개 면 지역 노인을 임의표집 하였다. 면접조사기간은 2011년 6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노인들이 논밭에 나가 지 않는 장마 기간의 비 오는 날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면접 설문은 표 2와 같이 사회인구적 특성, 현재 생활양식 특성, 공동주거에 입주하여 생활한다고 가정된 가상 시나리오특성 등 총 3개 영역의 구조로 설계하였고, 기초 문항을 제외한 면접 질문 수는 18개로 노인의 특성을 고려, 문항수를 최소화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고려하였다.

표 2. 면접 설문의 항목 설계

| 항목 | 면접 설문 설계 | 문항수 |
|------------|--|-----|
| 사회인구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 3 |
| 현재 생활양식 특성 | 동거인 종류, 주택 소유 여부, 주택 내구연한, 주택수리 하고 싶은 곳, 주택 수리 요구도, 현재 건강 상태, 현재 농사 여부, 현재 가장 불편한 점, 점심식사 장소 | 9 |
| 가상시나리오 특성 | 혼자되시면 함께 살고 싶은 사람, 함께 모여 사는 것에 대한 의견,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인원, 동거인, 공동주거 위치, 침실 양식, 부엌 양식, 같이 살면 가장 불편한 점 및 좋은 점 | 9 |

또한 면접 대상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취합하기 위해 K-ADL과 K-IADL을 측정 도구로 활용하여 이동하

기(지팡이, 유모차), 식사준비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항목을 집중 인터뷰하고 관찰하였다.

이는 독거노인 주거의 개호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동주거 계획시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및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용 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 대상 조사에서 의사소통과 행위 능력을 의심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낮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측정 가능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측정치는 리커트 3점 척도와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단, 설문면접 문항 중 건축계획적 요소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는 차기 논문에서 분석하기 위해 금번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1.3 선행연구의 고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이나 관련 전문분야(복지, 의료, 건축)의 연구는 타 어느 분야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 자료축적이 광범위하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개발 자료는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다. 주요 연구를 보면 노인의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 연구에서 부산광역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그룹홈을 혼자 거주하거나 부부만이 거주하는 노인 단독가구에 적합한 주거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⁶⁾,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대상 연구는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에서 독거노인, 조손 가정,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농어촌 공동생활 홈(community living home)을 정책적으로 제시,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⁷⁾ 또한 경로당과 개인주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⁸⁾가 이루어진 바, 공동주거 모형개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조사 대상의 특성과 현황 이해

2.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적 특성

설문면접 대상자 259명에 대해 보면, 여성 183명(70.7%), 남성 76명(29.3%)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많고, 연령별로는 70대 42.9%, 80대 35.1%, 60대 9.3% 순이다.

거주지를 보면 '농촌면리 노인'이 59.1%로 가장 많고 '어촌 면리 노인'이 18.9%, '도농 통합도시의 도시지역 동'

이 22.0% 순이다. 가족 형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54.4%, 비독거노인이 45.6%이다. 비독거노인의 동거 형태를 보면, '부부동거' 19.7%,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이 12.0%이고, '자녀와 사는' 비율 7.7%, '기타 친인척 및 친구 등과 살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다(표3 참조).

표 3. 전체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 조사 대상자 | 구 분 | f(%) |
|--------|--------|------------|
| 성별 | 남 | 76(29.3) |
| | 여 | 183(70.7) |
| 연령 | 40대 | 14(5.4) |
| | 50대 | 19(7.3) |
| | 60대 | 24(9.3) |
| | 70대 | 111(42.9) |
| | 80대 | 91(35.1) |
| 거주지 | 도시지역 동 | 57(22.0) |
| | 농촌 면/리 | 153(59.1) |
| | 어촌 면/리 | 49(18.9) |
| 가족형태 | 부부와 자녀 | 31(12.0) |
| | 자녀 | 20(7.7) |
| | 부부만 | 51(19.7) |
| | 혼자 | 141(54.4) |
| | 기타 | 16(6.2) |
| 소 계 | | 259(100.0) |

표 4. 집단별(독거노인, 비독거노인, 예비노인)사회인구적 특성

| 독거노인 | 구 분 | f(%) |
|-------|---------|------------|
| 성별 | 남 | 25(18.2) |
| | 여 | 112(81.8) |
| 연령 | 60대 | 7(5.1) |
| | 70대 | 70(51.1) |
| | 80대 | 60(43.8) |
| 거주지 | 도시지역 동 | 31(22.6) |
| | 농촌 면/리 | 80(58.4) |
| | 어촌 면/리 | 26(19.0) |
| 소 계 | | 137(100.0) |
| 비독거노인 | 구 분 | f(%) |
| 성별 | 남 | 38(42.7) |
| | 여 | 51(57.3) |
| 연령 | 60대 | 17(19.1) |
| | 70대 | 41(46.1) |
| | 80대 | 31(34.8) |
| 거주지 | 도시지역 동 | 8(9.0) |
| | 농촌 면/리 | 63(70.8) |
| | 어촌 면/리 | 18(20.2) |
| 가족형태 | 부부와 자녀 | 13(14.6) |
| | 자녀 | 17(19.1) |
| | 부부만 | 49(55.1) |
| | 기타 | 10(11.2) |
| 소 계 | | 89(100.0) |
| 예비노인 | 구 분 | f(%) |
| 성별 | 남 | 13(39.4) |
| | 여 | 20(60.6) |
| 연령 | 40대 | 13(42.4) |
| | 50대 | 20(57.6) |
| 거주지 | 도시지역 동 | 18(54.5) |
| | 농촌 면/리 | 10(30.3) |
| | 어촌 면/리 | 5(15.2) |
| 가족형태 | 부부와 자녀 | 19(54.5) |
| | 자녀 | 3(9.1) |
| | 부부만 | 2(6.1) |
| | 혼자 | 3(12.1) |
| 기타 | 6(18.2) | |
| 소 계 | | 33(100.0) |

6) 오찬욱,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부산광역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3호 2008. 3

7) 김강섭, 최효승 외,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개발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0.12

8) 박현준, 김승근, 박광범,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제13권2호 2011. 5

설문대상 독거노인 137명 중 112명(81.8%)가 여성이고, 25명(18.2%)이 남성이다. 비독거노인은 89명 중 51명(57.3%)이 여성이고, 38명(42.7%)이 남성이다. 또한 예비노인은 33명으로 20명(60.6%)이 여성이고, 13명(39.4%)이 남성이다. 독거노인은 7·80대 노인이 130명(94.9%), 비독거노인은 70대 31명(46.1%), 80대 41명(34.8%), 60대 17명(19.1%)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비독거노인 중 부부가구 및 기타 친인척 및 친구 동거 가구의 66.3%는 수년 내 독거노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요 분석 대상으로서 선호 경향의 미래 대응한 자료로 면밀하게 면접조사하고 분석하였다(표4 참조).

2.2 조사대상의 주거 현황 등

주택의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 보다 소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토지 주택 모두 소유' 19.0%, '주택만 소유' 40.9%, '전월세' 19.7%, '기타 자녀 소유이거나 문중 소유', '친지 소유' 등의 비율이 20.4%로 나타났다. 한편 비독거노인은 '토지 주택 모두 소유' 58.4%, '주택만 소유' 22.5%, '전월세' 7.9%, '기타' 11.2%로 자가(自家) 보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5 참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택의 건립년도를 질의한 결과, '20년 이상된 구옥 거주 독거노인이 73%, 비독거노인이 60.7%로 노후화 정도가 비교적 높고, 비독거노인의 경우 새로 '신축 주택' 비율이 27.0%로 높게 나타났다(표6 참조).

표 5. 주택의 소유 여부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토지, 주택 모두소유 | 26(19.0) | 52(58.4) |
| 주택만 소유 | 56(40.9) | 20(22.5) |
| 전월세 | 27(19.7) | 7(7.9) |
| 기타 | 28(20.4) | 10(11.2) |
| 소계 | 137(100.0) | 89(100.0) |

표 6. 현 거주 주택의 상태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새로 지음 | 9(6.6) | 24(27.0) |
| 옛날 집/20년 이상 | 100(73.0) | 54(60.7) |
| 최근 집수리 | 8(5.8) | 7(7.9) |
| 기타 | 20(14.6) | 1(1.1) |
| 미응답(결측) | - | 3(3.4) |
| 소계 | 137(100.0) | 89(100.0) |

현 거주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은 독거노인 그룹에서 그렇지 않다가 35.8%로 가장 높았고, 비독거노인은 그렇다가 3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욕심으로'라는 체념과 경제적 불가능성을 함께 호소하면서 조사된 결과이다. 비독거노인 보다 오히려 더 낫고 불편한 주택에 기거하면서 심정적으로는 국내 독거노인의 3중고인 빈곤, 질병, 고독과 같은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7 참조).

표 7. 현 주택의 수리 요구도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매우 그렇다 | 20(14.6) | 9(10.1) |
| 그렇다 | 40(31.4) | 34(38.2) |
| 보통 | 16(11.7) | 15(16.9) |
| 그렇지 않다 | 49(35.8) | 20(22.5) |
| 매우 그렇지 않다 | 5(3.6) | 5(5.6) |
| 미응답(결측) | 4(2.9) | 6(6.7) |
| 소계 | 137(100.0) | 89(100.0) |

주택에서 수리하고 싶은 곳을 질의한 결과 독거노인은 기타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지붕 개량, 창호 교체, 외벽 수리, 현관문 및 대문 등 예상과 다르게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화장실의 경우 아직까지 실내 수세식이 아닌 외부 재래식 화장실 사용으로 인하여 수리 요구도가 다소 높았다. 비독거노인도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거나 냉난방설비 개선이 독거노인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8참조).

표 8. 주택에서 수리하고 싶은 곳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화장실 | 25(18.2) | 16(18.0) |
| 부엌 | 11(8.0) | 6(6.7) |
| 보일러/난방,에어컨 | 24(17.5) | 20(22.5) |
| 기타 | 65(47.4) | 43(48.3) |
| 미응답(결측) | 12(8.8) | 4(4.5) |
| 소계 | 137(100.0) | 89(100.0) |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5단계로 측정해 본 결과, 독거노인은 '나쁘다' 53.3%, '보통' 21.2%, '좋다' 18.2%, '매우 나쁘다' 6.6%, '매우 좋다' 0.7%로, 대부분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독거노인도 유사한 비율로 건강이 나쁘다 55.1%, 보통 19.1%, 좋다 14.6%, 매우 나쁘다 10.1%, 매우 좋다 1.1%로 병의원과 보건지소 출입이 외출의 대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표9 참조).

표 9. 현재 건강상태 정도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매우 좋다 | 1(0.7) | 1(1.1) |
| 좋다 | 25(18.2) | 13(14.6) |
| 보통 | 29(21.2) | 17(19.1) |
| 나쁘다 | 73(53.3) | 49(55.1) |
| 매우 나쁘다 | 9(6.6) | 9(10.1) |
| 소계 | 137(100.0) | 89(100.0) |

현재 농사를 짓는지의 여부는 독거노인이 안 짓는다 83.9%로 농사를 짓거나 자식의 농사일을 도와준다 보다 매우 높았고, 비독거노인은 농사 짓는 비율(38.2%)과 안 짓는 비율(39.3%)이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논 밭에 출입하는 비율은 텃밭을 포함하여 60%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10 참조).

표 10.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의 여부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직접 농사 지음 | 7(5.1) | 34(38.2) |
| 자식농사 도와줌 | 2(1.5) | 7(7.9) |
| 안 짓는다 | 115(83.9) | 35(39.3) |
| 텃밭, 기타 | 13(9.5) | 13(14.6) |
| 소계 | 137(100.0) | 89(100.0) |

평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 구체적인 장소를 질의한 결과 독거노인과 비독거인 구분 없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독거노인 70.8%, 비독거노인 69.7%가 집에서 점심을 들고, 약 17% 노인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다.

표 11. 평소 점심식사의 장소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집에서 | 97(70.8) | 62(69.7) |
| 경로당/마을회관 | 23(16.8) | 15(16.9) |
| 기타 | 16(11.7) | 10(11.2) |
| 미응답(결측) | 1(0.7) | 2(2.2) |
| 소계 | 137(100.0) | 89(100.0) |

3. 공동주거의 선호경향 분석

3.1 집단에 따른 선호경향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에 대해 독거노인집단은 ‘나쁘다’ 43.1%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비독거노인집단은 ‘좋다’ 47.2%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예비노인집단에서는 ‘좋다’ 45.5%, ‘보통’ 39.4%로 긍정의 답이 압도적이다.

표 12.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의 의견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예비노인 |
|---------|------------|-----------|-----------|
| 매우 좋다 | 10(7.3) | 12(13.5) | 4(12.1) |
| 좋다 | 36(26.3) | 42(47.2) | 15(45.5) |
| 보통 | 22(16.1) | 12(13.5) | 13(39.4) |
| 나쁘다 | 59(43.1) | 20(22.5) | 1(3.0) |
| 매우 나쁘다 | 10(7.3) | 1(1.1) | - |
| 미응답(결측) | - | 2(2.2) | - |
| 소계 | 137(100.0) | 89(100.0) | 33(100.0) |

‘공동주거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은 ‘외롭지 않다’ 39.4%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익’ 31.4%, ‘서로 도울 수 있다’ 19%로 조사되었다.

표 13. 공동주거 생활시 가장 좋은 점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외롭지 않아서 | 54(39.4) | 28(31.5) |
| 난방비 등 경제적 이익 | 43(31.4) | 21(23.6) |
| 서로 도울 수 있음 | 26(19.0) | 32(36.0) |
| 기타 | 11(8.0) | 4(4.5) |
| 미응답(결측) | 3(2.2) | 4(4.5) |
| 소계 | 137(100.0) | 89(100.0) |

이에 대해 비독거노인은 ‘서로 도울 수 있다’ 36%, ‘외롭지 않다’ 31.5%, ‘경제적 이익’ 23.6%로 서로 다른 선호경향으로 조사되었다.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좋은 점과 동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외롭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노인 중 51.9%가 ‘나쁘다’라고 부정적이다.

표 14.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좋은 점의 의견 * f(%)

| 좋은 점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소계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외롭지 않아서 | | 4(7.4) | 10(18.5) | 4(7.4) | 28(51.9) | 8(14.8) | 54(100.0) |
| 경제적 이익 | | 2(4.7) | 8(18.6) | 10(23.3) | 23(53.5) | - | 43(100.0) |
| 서로 도울 수 있음 | | 1(3.8) | 14(53.8) | 5(19.2) | 6(23.1) | - | 26(100.0) |
| 기타 | | 2(18.2) | 4(36.4) | 2(18.2) | 2(18.2) | 1(9.1) | 11(100.0) |
| 소계 | | 9(6.7) | 36(26.9) | 21(15.7) | 59(44.0) | 9(6.7) | 134(100) |

*미응답 : 3

한편, 비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좋은 점과 동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46.9%가 긍정적이다.

표 15. 비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좋은 점의 의견 * f(%)

| 좋은 점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소계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외롭지 않아서 | | 3(10.7) | 14(50.0) | 4(14.3) | 7(25.0) | - | 28(100.0) |
| 경제적 이익 | | 4(19.0) | 10(47.6) | 3(14.3) | 4(19.0) | - | 21(100.0) |
| 서로 도울 수 있음 | | 5(15.6) | 15(46.9) | 4(12.5) | 8(25.0) | - | 32(100.0) |
| 기타 | | - | 3(75.0) | - | - | 1(25.0) | 4(100.0) |
| 소계 | | 12(14.1) | 42(49.4) | 11(12.9) | 19(22.4) | 1(1.2) | 85(100) |

*미응답 : 2

‘공동주거 생활을 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을 질의한 결과 독거노인은 ‘타인의 간섭’ 67.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의견 16.8%, ‘식사준비’ 8%, ‘청소 및 세탁’ 7.3% 순으로 조사되었다. 비독거노인은 ‘타인의 간섭’ 46.1%, ‘청소 및 세탁’과 기타 의견이 각각 18%, ‘식사준비’ 12.4% 순으로 다소 상이한 선호 경향으로 조사되었다(표16 참조). 즉,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 개인 사생활 보장 같은 요소가 가장 불편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자녀 및 친지 방문시 같이 숙박하며 지내는 것과 설, 추석 차례 및 집안 대소사 일을 치르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표 16. 공동주거 생활시 가장 불편한 점 * f(%)

| 구 분 | 독거노인 | 비독거노인 |
|---------|------------|-----------|
| 타인의 간섭 | 92(67.2) | 41(46.1) |
| 식사 준비 | 11(8.0) | 11(12.4) |
| 청소 및 세탁 | 10(7.3) | 16(18.0) |
| 기타 | 23(16.8) | 16(18.0) |
| 미응답(결측) | 1(0.7) | 5(5.6) |
| 소계 | 137(100.0) | 89(100.0) |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불편한 점’과 동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간섭’이라고 응답한 노인 중 50%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표17 참조).

표 17.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불편한 점의 의견 * f(%)

| 불편한 점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소계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타인의 간섭 | 3 (3.3) | 20 (21.7) | 16 (17.4) | 46 (50.0) | 7 (7.6) | 92 (100.0) | |
| 식사 준비 | 2 (18.2) | 5 (45.5) | 1 (9.1) | 2 (18.2) | 1 (9.1) | 11 (100.0) | |
| 청소 및 세탁 | 1 (10.0) | 2 (20.0) | 2 (20.0) | 4 (40.0) | 1 (10.0) | 10 (100.0) | |
| 기타 | 4 (17.4) | 9 (39.1) | 3 (13.0) | 7 (30.4) | - | 23 (100.0) | |
| 소계 | 10 (7.4) | 36 (26.5) | 22 (16.2) | 59 (43.4) | 9 (6.6) | 136 (100) | |

*미응답 : 1

한편, 비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불편한 점'과 동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간섭' 이라고 응답한 노인 중 53.7%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표18 참조).

표 18. 비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생활시 불편한 점의 의견* f(%)

| 불편한 점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소계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타인의 간섭 | 3 (7.3) | 22 (53.7) | 5 (12.2) | 10 (24.4) | 1 (2.4) | 41 (100.0) | |
| 식사 준비 | 3 (27.3) | 5 (45.5) | 3 (27.3) | - | - | 11 (100.0) | |
| 청소 및 세탁 | 4 (25.0) | 6 (37.5) | 2 (12.5) | 4 (25.0) | - | 16 (100.0) | |
| 기타 | 2 (12.5) | 9 (56.3) | 1 (6.3) | 4 (25.0) | - | 16 (100.0) | |
| 소계 | 12 (14.3) | 42 (50.0) | 11 (13.1) | 18 (21.4) | 1 (1.2) | 84 (100) | |

*미응답 : 3

3.2 건강 정도에 따른 선호경향

동거 선호도를 독거노인의 건강 정도에 따라 보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독거노인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이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또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독거노인 중 함께 사시는 것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가 40%로 조사되었고,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동거가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비율이 26%에 그쳤다(표19 참조).

표 19. 독거노인의 건강 정도와 공동주거 선호 * f(%)

| 건강 정도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소계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매우 좋다 | - | - | - | - | 1 (100.0) | 1 (100.0) | |
| 좋다 | 2 (8.0) | 8 (32.0) | 2 (8.0) | 12 (48.0) | 1 (4.0) | 25 (100.0) | |
| 보통 | 3 (10.3) | 12 (41.4) | 6 (20.7) | 8 (27.6) | - | 29 (100.0) | |
| 나쁘다 | 4 (5.5) | 15 (20.5) | 12 (16.4) | 37 (50.7) | 5 (6.8) | 73 (100.0) | |
| 매우 나쁘다 | 1 (11.1) | 1 (11.1) | 2 (22.2) | 2 (22.2) | 3 (33.3) | 9 (100.0) | |
| 소계 | 10 (7.3) | 36 (26.3) | 22 (16.1) | 59 (43.1) | 10 (7.3) | 137 (100.0) | |

비독거노인의 동거 선호도를 건강 정도에 따라 보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독거노인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또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독거

노인 중 함께 사시는 것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가 61.5%로 조사되었고,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동거가 '매우 나쁘다'는 없고 '나쁘다' 비율만 28.6%로 나타났다(표20 참조).

표 20. 비독거노인의 건강 정도와 공동주거 선호 * f(%)

| 건강 정도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소계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매우 좋다 | 1 (100.0) | - | - | - | - | 1 (100.0) | |
| 좋다 | 1 (7.7) | 7 (53.8) | 2 (15.4) | 3 (23.1) | - | 13 (100.0) | |
| 보통 | 2 (12.5) | 8 (50.0) | 3 (18.8) | 3 (18.8) | - | 16 (100.0) | |
| 나쁘다 | 8 (16.3) | 21 (42.9) | 6 (12.2) | 14 (28.6) | - | 49 (100.0) | |
| 매우 나쁘다 | - | 6 (75.0) | 1 (12.5) | - | 1 (12.5) | 8 (100.0) | |
| 소계 | 12 (13.8) | 42 (48.3) | 12 (13.8) | 20 (23.0) | 1 (1.1) | 87 (100.0) | |

3.3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공동주거선호 경향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주택만 소유한 '노인이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해 '나쁘다' 33.9%, '매우 나쁘다' 12.5%로 부정적 의견이 46.4%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토지 주택 모두 소유한 독거노인의 50%('매우 좋다' 19.2%, '좋다' 30.8%)가 동거에 긍정적이다(표21 참조).

표 21. 독거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동주거 선호

| 주택 소유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토지/주택 소유 | 5 (19.2) | 8 (30.8) | 3 (11.5) | 9 (34.6) | 1 (3.8) | 26 (100.0) | |
| 주택만 소유 | 2 (3.6) | 7 (30.4) | 11 (19.6) | 19 (33.9) | 7 (12.5) | 56 (100.0) | |
| 전월세 | - | 4 (14.8) | 3 (11.1) | 10 (66.7) | 2 (7.4) | 27 (100.0) | |
| 기타 | 3 (10.7) | 7 (25.0) | 5 (17.9) | 13 (46.4) | - | 28 (100.0) | |
| 소계 | 10 (7.3) | 36 (26.3) | 22 (16.1) | 59 (43.1) | 10 (7.3) | 137 (100) | |

비독거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동주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토지 및 주택 모두 소유한 '노인이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해 '좋다' 48%, '매우 좋다' 18%로 긍정적 의견이 66%이다. 그 외 주택만 소유하고 있거나 전월세 또는 기타 집단은 모두 공동주거에서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다(표 22 참조).

표 22. 비독거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동주거 선호

| 주택소유 | 동거 |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토지/주택 모두소유 | 9 (18.0) | 24 (48.0) | 6 (12.0) | 10 (20.0) | 1 (2.0) | 50 (100.0) | |
| 주택만 소유 | 1 (5.0) | 8 (40.0) | 4 (20.0) | 7 (35.0) | - | 20 (100.0) | |
| 전월세 | - | 4 (57.1) | 1 (14.3) | 2 (28.6) | - | 7 (100.0) | |
| 기타 | 2 (20.0) | 6 (60.0) | 1 (10.0) | 1 (10.0) | - | 10 (100.0) | |
| 소계 | 12 (13.8) | 42 (48.3) | 12 (13.8) | 20 (23.0) | 1 (1.1) | 87 (100) | |

3.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선호경향

(1) 독거노인

독거노인의 남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지 보면, 남자노인집단은 ‘매우 좋다’ 또는 ‘좋다’라는 긍정적 의견 36% <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는 부정적 의견 40%로 찬반 의견 비율이 유사하다. 반면 여자노인집단은 긍정적 의견이 33% < 부정적 의견이 52.6%로 남녀 집단간 차이가 있다(표 23 참조).

독거노인의 연령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지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견을 보인다(표 24 참조).

표 23. 독거노인의 성별과 공동주거 선호

| 성별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남 | 1 (4.0) | 8 (32.0) | 6 (24.0) | 9 (36.0) | 1 (4.0) | 25 (100.0) | |
| 여 | 9 (8.0) | 28 (25.0) | 16 (14.3) | 50 (44.6) | 9 (8.0) | 112 (100.0) | |
| 소계 | 10 (7.3) | 36 (26.3) | 22 (16.1) | 59 (43.1) | 10 (7.3) | 137 (100.0) | |

표 24. 독거노인의 연령대와 공동주거 선호

| 연령대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60대 | 1 (14.3) | 4 (57.1) | 1 (14.3) | 1 (14.3) | - | 7 (100.0) | |
| 70대 | 5 (7.1) | 21 (30.0) | 15 (21.4) | 25 (35.7) | 4 (5.7) | 70 (100.0) | |
| 80대 | 4 (6.7) | 11 (18.3) | 6 (10.0) | 33 (55.0) | 6 (10.0) | 60 (100.0) | |
| 소계 | 10 (7.3) | 36 (26.3) | 22 (16.1) | 59 (43.1) | 10 (7.3) | 137 (100.0) | |

표 25. 비독거노인의 성별과 공동주거 선호

| 성별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남 | 9 (23.7) | 16 (42.1) | 5 (13.2) | 8 (21.1) | - | 38 (100.0) | |
| 여 | 3 (6.1) | 26 (53.1) | 7 (14.3) | 12 (24.5) | 2 (2.0) | 49 (100.0) | |
| 소계 | 12 (13.8) | 42 (48.3) | 12 (13.8) | 20 (23.0) | 1 (1.1) | 87 (100.0) | |

(2) 비독거노인

비독거노인의 남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지 보면, 남자노인집단은 ‘매우 좋다’ 또는 ‘좋다’의 긍정적 의견이 65.8%,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21.1%로 긍정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여자노인집단은 긍정적 의견이 59.2%, 부정적 의견이 26.5%로 남자노인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긍정적 의견이다(표 25 참조).

표 26. 비독거노인의 연령대와 공동주거 선호

| 연령대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60대 | 4 (23.5) | 8 (47.1) | - | 5 (29.4) | - | 17 (100.0) | |
| 70대 | 6 (14.6) | 18 (43.9) | 4 (9.8) | 12 (29.3) | 1 (2.4) | 41 (100.0) | |
| 80대 | 2 (6.9) | 16 (55.2) | 8 (27.6) | 3 (10.3) | - | 29 (100.0) | |
| 소계 | 12 (13.8) | 42 (48.3) | 12 (13.8) | 20 (23.0) | 1 (1.1) | 87 (100.0) | |

비독거노인집단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동거주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의 긍정적인 의견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26 참조).

3.5 거주지역에 따른 선호경향

독거노인의 거주지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보면, 도시지역 동 노인은 ‘나쁘다’ 71%, ‘매우 나쁘다’ 9.7%로 부정적 의견이 80.7%로 비교적 높고, 농촌의 면/리 노인은 부정적 의견이 41.3%, 어촌의 면/리 노인은 ‘좋다’ 38.5%, ‘보통’ 19.2%, ‘나쁘다’ 38.5%로 의견 차이를 보인다(표 27 참조).

표 27. 독거노인의 거주지와 공동주거 선호

| 거주지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도시지역 동 | - | 5 (16.1) | 1 (3.2) | 22 (71.0) | 3 (9.7) | 31 (100.0) | |
| 농촌 면/리 | 10 (12.5) | 21 (26.3) | 16 (20.0) | 27 (33.8) | 6 (7.5) | 80 (100.0) | |
| 어촌 면/리 | - | 10 (38.5) | 5 (19.2) | 10 (38.5) | 1 (3.8) | 26 (100.0) | |
| 소계 | 10 (7.3) | 36 (26.3) | 22 (16.1) | 59 (43.1) | 10 (7.3) | 137 (100.0) | |

비독거노인의 거주지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보면, 도시지역 동 노인은 ‘좋다’ 75%로 조사되었고, 농촌의 면/리 노인은 ‘매우 좋다’ 18%, ‘좋다’ 45.9%로, 63.9%가 긍정적 의견으로, 어촌의 면/리 노인은 ‘좋다’ 44.45%, ‘보통’ 11.1%, ‘나쁘다’ 38.9%로 의견 차이를 보인다(표 28 참조).

표 28. 비독거노인의 거주지와 공동주거 선호

| 거주지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도시지역 동 | 1 (12.5) | 6 (75.0) | - | 1 (12.5) | - | 8 (100.0) | |
| 농촌 면/리 | 11 (18.0) | 28 (45.9) | 10 (16.4) | 12 (19.7) | - | 61 (100.0) | |
| 어촌 면/리 | - | 8 (44.4) | 2 (11.1) | 7 (38.9) | 1 (5.6) | 18 (100.0) | |
| 소계 | 12 (13.8) | 42 (48.3) | 12 (13.8) | 20 (23.0) | 1 (1.1) | 87 (100.0) | |

표 29. 독거노인의 주택 상태와 공동주거 선호

| 주택상태 | 동거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새로 지음 | 2 (22.2) | 3 (33.3) | - | 4 (44.4) | - | 9 (100.0) | |
| 옛날 집/20년 이상 | 7 (7.0) | 30 (30.0) | 18 (18.0) | 38 (38.0) | 7 (7.0) | 100 (100.0) | |
| 최근 집수리 | 1 (12.5) | 1 (12.5) | 2 (25.0) | 3 (37.5) | 1 (12.5) | 8 (100.0) | |
| 기타 | - | 2 (10.0) | 2 (10.0) | 14 (70.0) | 2 (10.0) | 20 (100.0) | |
| 소계 | 10 (7.3) | 36 (26.3) | 22 (16.1) | 59 (43.1) | 10 (7.3) | 137 (100.0) | |

3.6 소유주택의 노후화 상태에 따른 선호경향

소유주택의 노후화 상태에 따른 공동주택에서의 동거 선호 경향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구옥 거주 독거노인집단은 ‘나쁘다’ 38% > ‘좋다’ 30%, 신축 주택 거주자는 ‘매우

우 좋다' 또는 '좋다' 55.5% > '나쁘다' 44.4%로 선호 경향이 명확하지 않다(표 29 참조).

반면, 비독거노인은 20년 이상 구옥 거주자집단은 '매우 좋다' 9.3% < '좋다' 46.3%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신축 주택거주자집단의 경우, '매우 좋다' 또는 '좋다' 75% > '나쁘다' 25%로, 독거노인집단과 비독거노인집단 간 선호 경향의 차이가 보인다(표 30 참조).

표 30. 비독거노인의 주택 상태와 공동주거 선호

| 주택상태 |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견 | | | | | f(%) |
|-------------|----------------|--------------|--------------|--------------|-------------|---------------|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
| 새로 지음 | 6 (25.0) | 12 (50.0) | - | 6 (25.0) | - | 24 (100.0) |
| 옛날 집/20년 이상 | 5 (9.3) | 25 (46.3) | 11 (20.4) | 13 (24.1) | - | 54 (100.0) |
| 최근 집수리 | - | 4 (57.1) | 1 (14.3) | 1 (14.3) | 1 (14.3) | 7 (100.0) |
| 기타 | 1 (100.0) | - | - | - | - | 1 (100.0) |
| 소계 | 12 (14.0) | 41 (47.7) | 12 (14.0) | 20 (23.3) | 1 (1.2) | 86 (100.0) |

4. 결론

농어촌지역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거에서의 동거에 대한 선호 경향을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 및 비독거노인, 예비노인 각 집단에 따라 선호 경향이 표 31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31 공동주거에서의 동거에 대한 노인집단별 선호도

| 구분 | 독거노인집단 | 비독거노인집단 | 비고 |
|---------|-----------|---------|------------|
| 동거 선호도 | □ | ● | ●예비노인 |
| 건강 | 좋음 | ● | |
| | 나쁨 | ● | |
| 주택 소유여부 | 토지/주택 | ● | |
| | 주택만 | ● | |
| 성별 | 남 | ▲ | |
| | 여 | □ | |
| 연령별 | 60대 | ● | |
| | 70대 | ▲ | |
| | 80대 | □ | |
| 거주 지역별 | 도시 동지역 | □ | 도농통합 도시의 동 |
| | 농촌 먼리 | ▲ | |
| | 어촌 먼리 | ▲ | |
| 소유주택 상태 | 신축 | □ | |
| | 20년 이상 구옥 | □ | |
| | 최근 집수리 | □ | |

<법례> 선호도 : 긍정적 ●, 보통 ▲(5% 이하 차이), 부정적 □

첫째, 가족 등의 동거여부에 따른 집단의 선호를 보면,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이나, 비독거노인집단과 예비노인집단은 긍정적이다.

둘째, 건강 상태 및 소유 주택의 노후화 상태에 따른 선호를 보면,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이나, 비독거노인집단은 긍정적이다.

셋째,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선호를 보면, 주택만 소유한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이나, 그 외 기타 경우 긍정적이다.

넷째, 성별에 따른 선호를 보면, 남성 독거노인집단은 보통, 비독거노인집단은 긍정적이며, 여성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 비독거노인집단은 긍정적이다.

다섯째, 연령별 선호를 보면 60대 노인집단은 모두 긍정적이며, 70대 독거노인집단은 보통, 비독거노인집단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80대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 비독거노인집단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4·50대 예비노인집단은 긍정을 보인 바, 낮은 연령대 일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거주 지역별 선호를 보면,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이며, 농어촌면리의 독거노인집단은 보통의 선호도를 보인다. 반면에 도시지역과 농촌면리의 비독거노인집단은 긍정적이며, 어촌면리의 비독거노인집단은 보통의 선호도를 보인다.

농어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주거에서의 동거에 대한 선호 경향을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은 부정적 경향이나, 비독거노인집단과 예비노인집단은 비교적 긍정적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 비독거노인집단을 포함한 농어촌 노인들의 공동주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에서의 공동거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취한 독거노인집단은 공동 생활시 좋은 점으로 '외롭지 않아서'라고 응답하는 등의 모순된 의견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비독거노인이 공동주거에서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김강섭,임상봉,윤진수,전택기,김진환,최효승,김승근,박광범,한규량,송준숙,이규선,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모델개발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0. 12
- 2.김주석,홍찬선,김병철,임상봉,한경수,전택기,최병숙,박선희,박정란,오찬옥,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6. 12
- 3.박현춘, 김승근, 박광범,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제13권2호, 2011. 5
- 4.오찬옥,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9권3호, 2008. 3
- 5.Victor Regnier,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 Van Nostrand Reinhold, 1994